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추진

- 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 발생, 2월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
- 위험 시군을 선정하여 특별점검 및 일제 검사, 집중 소독 주간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2월 2일(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30차, 1.30.) 전북 김제 산란계(85천여 마리), (31차, 1.31.) 전북 부안 육용오리(26천여 마리), (32차, 2.1.) 전남 함평 종오리(12천여 마리)

1. 발생 상황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은 1월 31일(금) 방역기관의 정기에찰 과정,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은 2월 1일(토) 산란율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2월 1일(토)과 2월 2일(일)에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화) 첫 발생 이후 31번째와 32번째* 발생이고 오리농장에서는 16번째 발생사례이다.

* 축종별 : 닭 16건(산란계 11,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 오리 14, 종오리 2)

** 지역별 : 전북 9건(부안 5, 김제 4), 충북 5건(음성 3, 진천 2),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전남 4건(강진, 영암, 담양, 함평),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경북 2건(영천, 구미),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강원 1건(동해)

국내 가금농장(32건)과 야생조류(3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현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51건, 야생조류

109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전북 부안군 육용 오리농장과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 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전북 오리농장 및 전국 삼호 유향오리 계열사 오리 관련) 2.1.(토) 11시 ~ 2.2.(일) 11시, 24시간
(전남 오리농장 및 전국 사조원 계열사 오리 관련) 2.1.(토) 23시 ~ 2.2.(일) 23시, 24시간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전북 31호, 전남 33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2.5.~2.21.)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2.3.~2.16.)을 지정하여 산란계 및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 산란계 및 오리 사육이 많고, 2016년 이후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경기(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남(아산, 천안, 청양), 충북(음성, 진천), 세종, 전남(나주,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장흥), 전북(김제, 부안, 정읍, 고창), 경남(양산, 창녕), 경북(영주, 의성)]

둘째,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2.5.~2.18.)를 시행한다.

* 산란계 사육이 많고, 2016년 이후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경기(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남(아산, 천안, 청양), 충북(음성, 진천), 세종, 전남(나주), 전북(김제), 경남(양산, 창녕), 경북(영주, 의성)]

셋째,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 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2.5.~2.21)을 추진한다.

* 오리 사육이 많은 전남·북 지역 중, 2016년 이후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전남(함평, 강진, 영암, 나주, 무안, 장흥), 전북(부안, 정읍, 고창)]

넷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사조원, 삼호 유휴오리)에 대해 일제 검사(2.1.~2.7.)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김제 산란계, 부안 육용 오리, 함평 종오리)이 발생하는 등 2월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남도와 전북도는 차단방역을 위해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각 지자체도 발생 오리계열사 오리농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계란 및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2월 한 달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에 따라 특별점검, 일제검사 및 집중 소독을 빠짐없이 시행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37만9천 마리와 2만1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오리(633만 마리)와 종오리(83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와 2.5% 수준이나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 마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책임자 | 과 장 | 정승교 (044-201-2551)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병용 (044-201-2555) |
| 담당 부서 (수급)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오리) | 책임자 | 과 장 | 이연섭 (044-201-2331) |
| | | 담당자 | 서기관 | 이동민 (044-201-2338) |
| 담당 부서 (지자체)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 농축수신해양재난대응과 | 책임자 | 과 장 | 이선무 (044-205-6190)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정권 (044-205-6191) |
| 담당 부서 (야생조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차은철 (044-201-7220) |
| | | 담당자 | 사무관 | 황지영 (044-201-7503) |

